

대행 스님

모르든 알든 그냥 무조건 믿어보세요, 자기를 이끌어가는 자기를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니 우리 마음은 얼마나 큰가. 허허, 헤아릴 수가 없이 크죠. 마음이라는 그건 말로 헤아릴 수 없이 크죠. 그러나 말로 헤아릴 수 없이 작기도 하답니다. 그러니 일체 허공의 생명들의 마음이나 산하대지의 생명들의 마음이나 마음을 한데 합쳐서 좁쌀 알갱이에다가 전부 넣어도 손색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꺼내서 이 삼라만상 대천세계에 다 풀어 놔도, 좁쌀 알갱이에서 다 꺼내서 풀어 놔도 손색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광대하고 무변한 도립니다. 이런데 생활에서 좀 굴려서 쓰시라고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그 마음 하나를 딱딱 굴릴 줄 몰라서 그냥 벌어지는 일 다 벌어지게 하고 죽을 맛이 나 가지곤 죽겠느니 살겠느니 한단 말입니다.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내 앞에 봉투를 갖다 놓고 "스님!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말씀할 적마다 아이, 참내! 앞에 봉투를 안 갖다 놔도 될 수 있는데 봉투를 갖다 놓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여건이 있죠. 하나는 보시금이면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쓰는 거 아끼지 않고 다만 얼마라도 갖다 놓는 거, 자기는 정성의 마음으로서 갖다 놓는 거. 그건 하늘이 다 아는 얘기니깐 내가 주제넘게 말을 할 수가 없죠, 갖다 놓고 안 갖다 놓는 걸. 거기 갖다 놨을 때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았을 때는 나를 갖다 준 것도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은 내게 가져다 줬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내게 갖다 준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자부처에 갖다 놓은 겁니다. 모습이 둘이 아니요, 와서 나를 만날 때는 자기 모습과 내 모습이, 자기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닌 까닭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불이 켜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둘이 아닌 한마음에 갖다 놓은 거지, 부처님한테 갖다 놓은 거지, 우리 모습 육신 잘 살라고 갖다 놓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부처님, 스승에 의해서 그거를 하나하나 잘 구석구석에 써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 주니까, 써 주니까 그 돈을 갖다 놓은 사람들은 그 인연으로 인해서, 그 정성으로 인해서, 그 실천으로 인해서 모두 부모의 조상도 갇혀 있던 게 풀려나게 됩니다. 천차만별의 갈래갈래 모습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온 그 자체가 그냥 업이죠. 그 속에 들어서 헤어나질 못하고 가지가지 모습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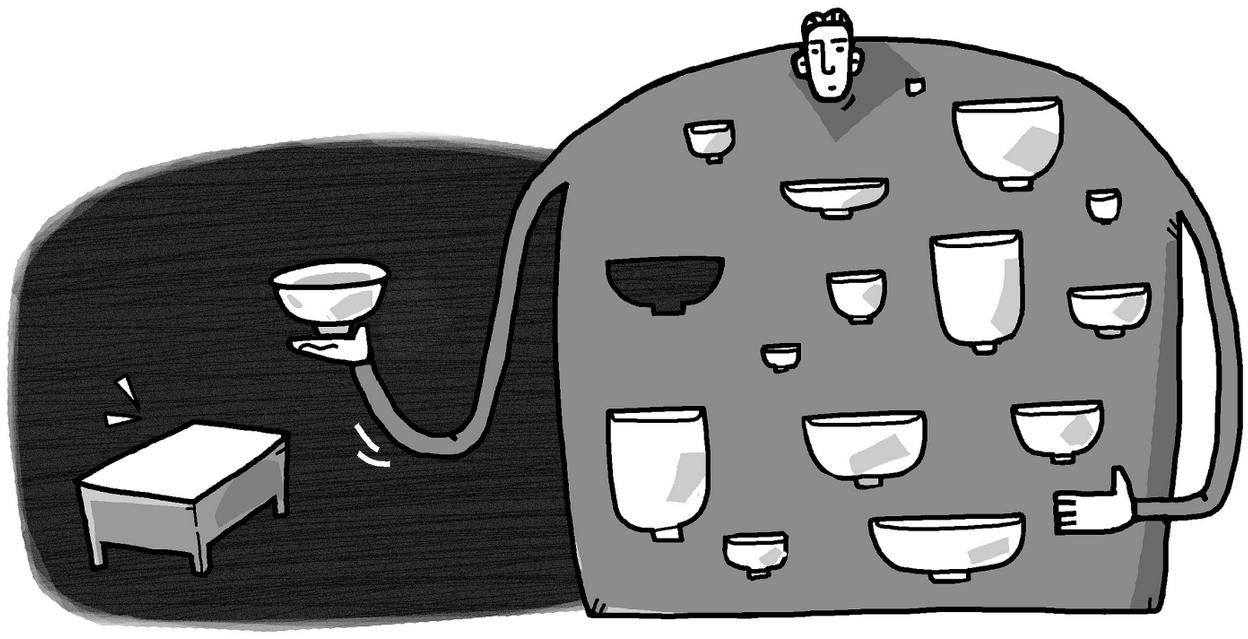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래서 한 가정에 한 사람만 극진히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게 다 은근히 풀려나간다고 그랬는데….

집안에 어떠한 큰일이 있으면, 유전성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건 대대로 내려오면서 유전이거든요. 그렇다면 무거우면 두 손으로 다 들듯이, 한 식구가 다 이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관하고 이럭한다면 한울이, 제불(諸佛)이 껄껄 웃으면서 더불어 같이 한자리 할 겁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그저 자식들도 돈으로만 해결해서 먹이기 잘하고 입히기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거 관하는 것만 일러 줘서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고 찾을 줄만 안다면 뭐든지 거기에서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깐요. 그러니 보배를 찾아줌과 같죠.

돈이라는 거는 있다가도 한 번만 잘못되면 그냥 왕창 다 없어져 거지가 돼 버리고 마는 것이 돈이거든요. 그러나 이 보배라는 것은 울궈먹어도 울궈먹어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고 넣어도 넣어도 불어나지 않고 그냥 영원하게 세세생생에 쭉 그 종자가 내려가는 데도 손색이 없다 이런 말이죠.

어휴, 하여튼 보살이 무슨 말을 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이렇게 이렇게 해도 먹는 사람은 먹고 싶은 거를 다 집어 먹을 수 있으니까 나는 걱정을 안 해요. 내가 걱정하는 것은, 걱정도 아니지만 마음을 좀 툭툭 벗어나 봐라. 좀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어디 좀 그런 그림이라도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산책이라도 좀 해 봐라. 허허. 또 산책을 해 보다 보면 좀 볼거리도 있을 거다. 또 어느 물에도 좀…, 그 괜히 뛰어들어 가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생기걸랑은.

예전에 어떤 사람이 술잔을 하나 만들었더래요. 그런데 술잔 안에다 자기 영혼을 집어넣었거든요. 허허허. 그게 마음이라는 거죠? 집어넣어서 만들었는데 말이에요, 술을 먹을 만치만 부어서 먹어야지 더 먹는다 하면 술이 부으면 없어져요. 허허. 그러한 잔도 있었더랍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인 영원한 그 마음 자체를, 줄지도 않는 그 마음을 말입니다, 마음대로 늘여서 쓰려면 늘여서 쓰고 줄여서 쓰려면 줄여서 쓰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펼쳐서 쓰려면 펼쳐서 쓰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허공에 그 생명들의 마음도 포함이 돼 주기 때문에 에너지가 저절로 항구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냥, 마음 쓰기에 따라 쓰여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즉 말하자면 그걸 끌어 쓰려고 애써서 하나만 끌어서 에너지를 사용했는데, 우리는 만년묵이거든. 난리가 나도 들고 다닐 필요도 없이 여기에 만년묵이로 돼 있거든. 여러분의 콤퓨타에 다 들어 있고 그걸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세세생생을 써도 줄지 않는 그런 묵이가 돼 있거든.

이렇게 조금조금 말 못 하는 일들을 그저 대수롭지 않은 데서 힌트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난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이 급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만약에 불이 났다 하면 그냥 살 양으로 뛰어나가려고 애쓰죠? 그와 같이 무슨 일이 생기면 주인공도 그렇게 부릴 수 있다! 허허, '급하면 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급하면 마음으로 늘여서 쓰든 줄여서 쓰든 그냥 점프를 해서 쓰든 그냥 쓸 거다. 허허허, 이해가 갑니까?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음이 닦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서 마음공부 하기가 참 힘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어려운 역경, 어려운 경계, 어려운 생활고 그 속에서 자기 마음을 밝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스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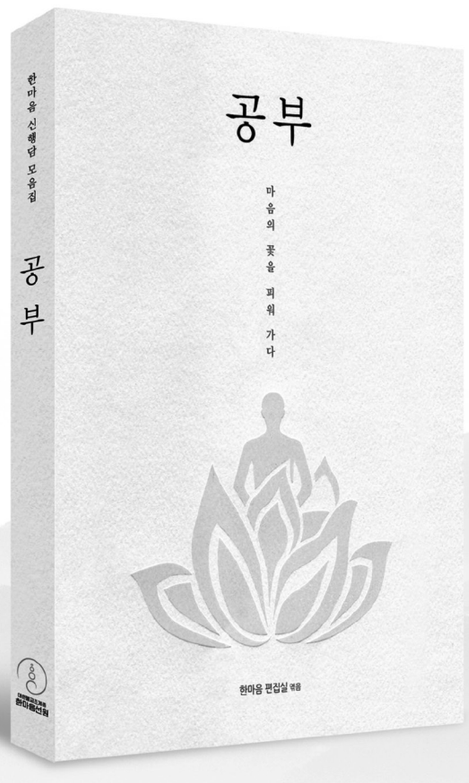
큰스님 공부하는 태도가 말입니다, 사람 사는 게 그 모두 천차만별로 가지가지를 헤아릴 수 없는 생활인데 어떻게 그렇게 귀찮게 갈가리 찢어서 살 수가 있겠소? 그러니깐 공부하는 것도 저 부처님을 보되, 나의 모습을 보되 모든 거를 자기 모습과 둘 아니게 그냥 둥글려서 주인공 하나로 보란 얘기죠. 그렇게 하면 편리할 거를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해서, 예전에 고사를 지내도 여기 갖다 놓고 저기 갖다 놓고 저기 갖다 놓고, 이렇게들 모두 공평치 못하게 살거든요.

그리고 아까 어려운 경계가 없으면 공부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도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왜 어려웁게 만들어 가지고 공부를 하느냐 이거야. 어렵지 않은 처지에서는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하지. 그건 왜냐하면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게 아니거든. 그리고 검소하게 살아야 하거든. 자기 분수에 맞게 말이야. 인간이 살아나가는 경계에서 분수에 맞게, 우리 한국 나라라는 것도 잊지 말고, 내 가정의 부모가 대대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지나온 것도 알아서 내가 분수에 맞게, 그리고 있는 자는 더 검소해야 된다, 익은 자는 더 고개를 수그려야 된다, 허리를 굽혀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재산이 있다 그래서 마구 사는 사람은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있으나 없으나, 있는 사람이 사는 거나 없는 사람이 사는 거나 똑같아야 된다. 똑같아야 하고

☞ 22면으로 계속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